

보 도 자 료

96. 5. 14. 08 : 00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丁海淑. 61)

주 무 : 대변인 홍진관(洪鎭寬 675-6181, 015-351-8821)

제 목 :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 교사·학부모·시민 교육개혁 공동 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6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오성숙·43),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는 **14일(화) 오전 10시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아래로부터 교육개혁·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공동선언'을 했다.

2. 세 단체는 선언에서 냉전교육, 권위주의의 교육을 배격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표방한 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교사만이 아닌 학부모,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개혁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통해 변화되는 학교현장의 상을 보여준다.

3. 이 공동선언은 진정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향한 교육주체들의 참여선언이다.

또한 선언은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가치규범 형성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3자의 공동실천 강령이다.

4. 무엇보다도 공동 선언은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3주체들의 자정결의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는 *촌지 *학교비리 *체벌과 폭언 *냉소와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늘 연구하고 인생의 선배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야 함을 결의했다.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방관적 자세 *자기 자녀 이기주의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위에 적극 참여해 당당한 교육주체가 될 것을 결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검은 돈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학벌주의·과열입시 교육 개선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결의했다.

5. 세 단체는 앞으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가두캠페인과 학교운영위원 초청 일일학교 등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선언문>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 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공동선언

올해는 5·10 교육 민주화선언 열돛이 되는 해이다.

권위주의 교육, 냉전교육을 배격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표방한 교육민주화 선언 10년, 지금 우리사회와 학원은 거대한 내적·외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 그 백년지대계인 다음 세대교육에 거는 전사회적 기대를 직시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할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공동의 입장과 실천강령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화 · 역사바로세우기 · 민족통일 등 21세기를 준비하는 사회개혁과 이 개혁과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통합적 가치관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는 세계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맑고 깨끗한 시민사회규범을 확립하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민족통합적 가치관을 훈련시키며,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형을 창출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중심과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아래로부터의 현장교육주체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없이 '위로부터' 추진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현장인 학교가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나 위에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평작 학교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교문은 여전히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닫혀 있으며, 권위적인 밀실행정 속에 오고가는 크고 작은 비리와 부정은 사회전체의 분위기속에 게 용인되고 있다.

여전히 아이들은 성적으로 인간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속에서 가출과 자살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입시탈락생, 실업 학교생, 농어촌 학생, 장애아 등은 제도 교육으로부터 더욱 더 소외되고 있다.

개혁에서 소외된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물수당한 채 냉소와 무사안일에 빠지기도, 지친 생활인으로 촌지의 유혹에 빠지기도, 관중한 업무속에 군대식 통제 방식에 의존하기도 한다.

학부모에게 현재의 교육개혁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에 허덕이면서

도 콩나물 교실에서 교사의 관심한번 못받고 자라날 아이들을 걱정하여 철마다 촌지문제로 번민해야 한다. 교육개혁, 교육자치는 주창되었으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 민족통일의 주역일 우리의 아이들은 밝고 옹골고 지혜로우며, 친구와 이웃을 아끼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존중받는 각 개인이 인격체로 자라야 한다.

미래의 주역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는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열고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첫 삽질은 주체들에게 교문을 열어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도록 하며, 밀실을 열어 온갖 부정과 비리를 걷어내도록 하는 일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이웃집 사랑방에서 마을일을 의논하듯이 부담 없이 만나 서로를 신뢰하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와 국가는 아이들이 놀고 공부하는 곳을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며, 각 개인이 갖고있는 소질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고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주체들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학교를 해맑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터로 가꾸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실현의 필수전제가 사회와 교육현장전반에 만연한 갖가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비상한 자정결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공동선언의 최우선의 전제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교사·학부모·시민이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3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교육주체로서의 교육개혁에 임하는 결의를 밝히며 온 국민이 우리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우리 교사는

1. 냉소와 무사안일을 떨치고 학교개혁의 주체로 나선다.
1. 촌지를 거부하며, 학교 비리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1. 아이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삼가고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도록 한다.
1.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으로 지도한다.
1. 늘 연구하는 교사로 아이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힘쓴다.

우리 학부모는

1. 우리 교육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에 앞장선다.

1. 학교의 민주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쓴다.

1. 학급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 교사와 만남으로써 내 아이만을 위해 촌지를 건네지 않는 건강한 학부모의식을 정립한다.

1. 학교안의 교육비리에 눈감지 않으며 부당한 찬조금징수관행을 없애 나간다.

1. 아이에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 하지 않고 그들이 지닌 소질과 재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1. 크고 작은 검은 돈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1. 학벌주의·과열입시교육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재정 GNP 5% 이상 확보,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철저한 공개와 교사·학부모·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운동과 협력하여 각종 교육조례제정, 학교운영위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를 통해 시민참여의 모범을 세운다.

1.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연대·협력한다.

1996. 5.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 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공동선언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전교조 이수일 사무처장

각 단체 대표 :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해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성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 | | |
|----------------|-------|----------------|
| 1. 참석자 소개 | ----- | 사회자 |
| 2. 인사말 | ----- |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 |
| 3.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 | ----- |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 |
| 4. 공동선언문 낭독 | ----- |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
| 5. 향후 캠페인 일정발표 | ----- | 오성숙 참교육 학부모회회장 |

향후 일정 계획(5월~6월)

○5/13 맑은학교를 위한 공청회

: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 교육비리추방을 위한 대안 모색”

○5/14 기자회견

: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교육 주체 선언”

○5/16~5/17 가두캠페인 :

종로와 명동 일대에서 공동 선언문 내용을 가지고 입체적인 가두 캠페인 전개

○5/23 학교운영위원 초청 일일 교육 : “학교운영위 알고 참여합시다.”

○5/24~ 모범 학교운영위규정안 발표

각 학교 학교운영위 첫 번째 안전 채택운동

- 모범 학교운영위 규정 채택안과 교육비리추방의 건
전교조, 학부모회의 지역간담회와 교육 교재, VTR 교재 개발, 배포를 통한 지역확산작업

○5월 말 연중 기획으로 맑은학교만들기 학교운영위안 초청 일일 학교